▶ 이재명 김부선 스캔들 재점화

황교익-공지영, SNS 설전

공지영, 주진우 기자에 해명 요구… 황교익 난타전 가세
"해명 강요 예의 아냐" vs "전해들은 말 침묵해야 하나"

지방 선거는 끝났지만 이재명(54)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당선인과 영화배우 김부선(57)씨 스캔들을 둘러싼 파장은 계속되고 있다.

작가 공지영(55)씨가 이와 관련한 주진우(44)기자와의 해명을 요구한 가운데, 맛칼럼니스트인 황교익(56)씨가 난타전에 가세했다.

황씨는 20일 페이스북에 "전해 들은 말에는 일단 어떤 판단의 말도 하지 말아야 한다"며 "말이 옮겨지며 왜곡된 내용이 포함되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자신에게 직접 한 말이 아니라 옆에 있다가 우연히 들린 것이면 안 들은 것으로 쳐야 한다. 누군가 그 때에 들은 말을 물으면 '난 몰라요' 하고 답해야 하는 게 옳다"고 썼다.

또 "인간이란 동물은 기묘하게도 '스토리'를 만드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모래알만큼 듣고 는 태산을 본 듯이 말하는 인간 특유의 '버릇'이 무의식중에 발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별나게 어떤 부류의 사람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이 원래 그렇다는 말이다. 이를 잘 알고 조용히 입닫고 있는 사람에게 자꾸 뭔가를 말하라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 우격다짐을 한다 해도 그에게서 들을 수 있는 말은 이것밖에 없을 것이다. '난 몰라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황교익(사진왼쪽), 공지영(사진오른쪽)

같은 날 공씨는 페이스북에 황씨 글을 공유하면서 "1987년 잡혀온 대공수사관들에게 고문 가담자가 은폐되었다는 말을 듣고 그걸 폭로한 당시 정의구현단 사제도 어디까지나 '전해들은 말'이라 침묵했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본인이 밝히라 왜 주변인들이 이리 떠드시는지 그것이 한 여자를 인격살인하는데 사용된다면 난 앞으로도 외칠 것이다"며 "차라리 정의도, 민주도, 역사도 말하지 말라. 그냥 왜 그 남자를 깎아내렸냐고 비난하길"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황씨는 20일 페이스북에 "나는 이재명 편도 아니고 김부선편도 아니다"며 "이재명과 김부선의 두 주장은 그냥 주장으로서만 팽팽할 뿐이다. 둘 사이에 그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는 없었는지 두 당사자 외는 알 길이 없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상황"이라고 적었다.

앞서 공씨는 이재명 당선인과 김부선 스캔들 의혹을 뒷받침하는 주진우 기자 대화를 털어놓았다.지난 7일 페이스북에 "2년 전 주 기자와 차를 타고 가는데 그가 '김부선 문제(스캔들) 때문에 요새 골머리를 앓았는데 다 해결됐다. 겨우 막았다'라고 얘기했다"고 썼다.

그러면서 최근 주 기자와 김부선으로 추정되는 두 사람의 녹취록을 듣게 됐다고 했다. "그때 그 이야기가 이 이야기였구나 싶었다. 그리고 사안이 좀 심각하다 느꼈다"면서 "찾아보니 이재명 시장은 모든 걸 부인하고 있었고 김부선님은 허언증 환자에 관종으로 취급받고 있는 분위기다. 이건 아니다 싶어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부선은 이재명 당선인과 애인관계였다고 주장, 6·13 지방선거 기간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지난 10일 KBS 1TV '뉴스 9'와 인터뷰에서 "더 이상 숨길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다. 거짓이면 천벌 받을 것이고 당장 구속돼도 어쩔 수 없다. 내가 살아있는 증인"이라며 이 당선인에게 진실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후보는 "사실무근"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뉴시스

▶ 끼많은 청소년 모여라

전주영상위원회는 '2018 전주 청소년 영화연기 워크숍' 교육생을 21일부터 7월 19일까지 모집한다.

전주영상위, 영화 · 연기 워크숍 교육생 모집

(사)전주영상위원회는 '2018 전주 청소년 영화연기 워크숍' 교육생을 21일부터 7월 19일까지 모집한다.

이는 지역 청소년 중 연기에 잠재적 능력이 있고 연기자의 꿈을 가진 이들에게 소질과 적성개발 발굴 기회 제공 꿈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전북교육청 민간보조 지원사업과 연계해 배우가 갖춰야 할 연기를 좀 더 세분화시켜 즉흥, 코믹, 무술 연기 등 다양한 장르적 연기와 무대(정극·뮤지컬) 연기 교육을 강화했다.

이번 교육은 다음 달 31일부터 8월 3일까지 전주영화종합촬영소와 한애랑아트홀,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진행된다.

참여 대상은 전주(전북) 지역 내 거주하고 영화연기 직업을 희망하는 고등학생(청소년)으로 영화연기에 관심과 열정으로 교육에 참여 할 수 있는 자면 누구나 가능하다.

올해 교육 강사로는 드라마 '응답하라 1988'에서 택이 아빠로 유명한 배우 최무성을 비롯해 정민성, 권민중 김현균, 배용근, 이재준, 영화감독 봉만대가 참여한다.

또 연기에 대한 소양 인문학 특강에는 동아방송예술대 한화성 교수와 월드웹 칼럼이니스트이자 영화 교육자인 아트센터 라엘 최현경 대표가 참여한다.

교육비는 무료이며, 접수는 온라인 접수만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영화 종합촬영소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사업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전주영상위원회 관계자는 "연기의 기본 소양인 인문학 교육도 진행해 지역 청소년들에게 영화·연기 잠재능력을 끌어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관광업체 시설 확충 · 경영 활성화 지원에 2300억 푼다

정부가 관광 사업체 시설 확충과 경영 활성화를 돕기 위해 2018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 하반기에 관광기금 총 예산 4950억원의 46%인 2300억원을 융자한다고 21일 밝혔다. 문체부는 올 상반기 이미 2650억원 융자를 집행했다. 융자예산 부족 시 시설자금에 한해 반기 융자예산의 10% 이내에서 내년 예산을 이월 집행할 방침이다.

융자 대상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체와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훈령)'에 따른 관광연관업체다. 관광사업체 약 320개가 융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융자 한도는 운영자금의 경우 최대 10억원, 시설자금의 경우 최대 150억원이다

대출 금리는 기획재정부 공자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2018년 2분기 2.48%)로 적용한다.

특히 문체부는 이번 지원에서 크게 두 가지를 개선했다.

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야영장업·관광식당업·한옥체험업·숙박업)의 시설자금에 대해 1.25%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한국관광품질인증제'의 조기 정착을 유도해 관광 서비스와 시설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기존에는 중소기업에 한해 기준금리에서 0.75%포인트를 우대했다.

시설자금 융자 기준이 되는 기성고 인정액을 종전 50%에서 60%로 확대한다.

운영자금 신청 기간은 3분기는 22일부터 7월 13일까지, 4분기는 9월3일부터 28일까지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업종별 관광협회와 시도 관광협회에서 신청서를 접수한다. 선정된 관광사업체는 3분기는 9월28일, 4분기는 11월23일까지 취급 은행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시설자금 신청 기간은 22일부터 11월23일까지다. 융자 취급 은행 본·지점에서 신청서를 접수한다. 선정되면 12월19일까지 취급 은행에서 융자를 수시로 받을 수 있다.

/뉴시스

'아시아 국제 기타 페스티벌'에서 한국인 최초로 기타리스트 이동휘(19)가 우승했다.

이동휘, 한국인 최초 '아시아 기타 페스티벌' 우승

클래식 기타 대회 '아시아 국제 기타 페스티벌'에서 한국인 최초로 기타리스트 이동휘(19)가 우승했다.

최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이 대회 유일한 한국 참가자였던 그는 독일, 프랑스 등 8개국 참가자 25명과 경합 끝에 영광을 안았다. 2위는 우크라이나의 드미트로 오멜차크, 3위는 프랑스의 클레망 망젤이 차지했다.

이동휘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위치한 빈 콘서트 하우스에서 우승 기념 콘서트를 연다.

기타리스트 양승만과 이노영을 사사한 이동휘는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재학 중인 국내파다. 세계 클래식 기타계 유망주로 아시아, 유럽을 무대로 활약하고 있다. 국내외 19개 콩쿠르에서 1위를 차지했다. 스페인 기타 제작자 폴리노 베르나베가 운영하는 '스페인 기타 재단' 소속 연주자이기도 하다.

/뉴시스

익산시,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우수권역 선정

지난해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으로 선정된 백제문화권역(공주·부여·대전·익산)이 지난해 사업 평가 결과 우수권역으로 선정돼 인센티브로 국비 5억 원을 추가 지원받는다고 익산시가 21일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해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을 핵심 정책사업으로 정하고 전국에 테마별 특화 관광코스를 조성해 지역관광 품질을 제고 및 대한민국 핵심관광지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백제문화권을 비롯해 전국 10개 권역을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번 우수 권역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각 권역의 △권역 통합홍보 마케팅 노력도 △지자체장 사업 추진 의지 및 적극성 △지자체 간 사업 협력도 △예산 집행률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2개 권역(백제문화권, 선비문화권)을 선정했다.

/익산=우병희 기자